

탄소중립시대 이끝 우수 인재 양성

전북도,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본격 추진
올해 도비 1억 추경 편성 등 사업비 11억원 확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맞춤형 인력 제공

전북도가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47억원과 지방비 23억원 등 총 82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11억원을 확보했다.

전라북도·전주시·군산시 3개 지자체와 전북대·군산대·전주대 3개 지역대학, LS일렉트릭·OCI파워 등 26개 도내기업이 참여하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 주관기관을 맡는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전북대학교의 해상풍력 실무기술, 군산대학교의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전주대학교에서 전력변환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졌다.

교육대상으로는 참여대학 소속의 석·박사 교육과정 재학생이다. 올해 기준으로 58명에게 장학금 지급 및 기업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번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경험을 겸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5년간 142명 배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기업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고급 인재를 기업 맞춤형 취업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고급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꾀한다. 이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본 사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인력의 지역내 정착과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지난 2019년 11월 15일 전국 최초로 지정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군산국가산단, 새만금산단 1·2·5·6공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총 23.8km에 걸쳐 지정됐다. /김경수 기자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상환은 NH농협은행 고객센터(☎1661-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신규 및 만기 연장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0.1%p 우대금리와 함께 신규자금 5조원, 기한연장 7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김재훈 기자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상환은 NH농협은행 고객센터(☎1661-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신규 및 만기 연장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0.1%p 우대금리와 함께 신규자금 5조원, 기한연장 7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 초기창업자금 지원

NH농협은행, 재창업
특례보증대출 상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초기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대출' 상품을 지난달 출시했다고 밝혔다.

재창업 특례보증대출은 2020년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액보증 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상환은 NH농협은행 고객센터(☎1661-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신규 및 만기 연장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0.1%p 우대금리와 함께 신규자금 5조원, 기한연장 7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김재훈 기자



인간농협 김귀용 과장보
'함께하는 우수 농협인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인간농협 김귀용 과장이 전북농협 9월 함께하는 우수 농협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귀용 과장보는 2013년 인간농협에 입사한 후 출근 신용사업(대출업무)에 종사하며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농협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기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채권관리에 힘쓴 바, 금년 연체비율을 2020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축시켜 농협의 건전결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헌신의 자세로 '함께하는 농협'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수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인간농협 발전과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귀용 과장보는 "훈자 받는 상이 아닌 인간농협 전 임직원이 함께 받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간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농업인 조합원께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2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일석이조 사랑의 추석 나눔'

전북은행, 쌀 전달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2 일석이조 추석 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한국 전북은행장장을 비롯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유병설 사무처장, 방극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사회적 기업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구매했다.

이후 전북·중부지역 전 영업점 직원들이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 봉사활동에 나서 일석이조의 나눔을 실천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명절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전달돼 모두가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배려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

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은행권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김, 한과 양말, 김부각, 누룽지, 국수 등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시

고창산림조합 태풍 피해 가로수 긴급복구작업 실시

고창군산림조합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다.

6일 오전 7시 광원교차로 ~ 성기교차로 사이 주요도로 가로수(소나무) 등 주요 도로변 도복목을 대상으로 건설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쓰러진 나무들의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은 "태풍 '힌남노'의 불풍으로 인한 가로수 도복목 복구 작업을 위하여 운용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 11월 일산 킨텍스서

한국국토정보공사(KLX)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기술교류 박람회인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11월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엑스포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디지털트윈, 드론 증강·가상현실 등을 토대로 더 나은 일상과 건강한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한다.

올해로 열네 번째로 개최되는 엑스포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지난해 온라인 행사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엑스포는 주목받는 신기술을 선보이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연결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QR코드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폐기물을 감량하는 친환경에 중점을 뒀다.

전시장에는 국내·외 유망 공간정보 기업과 디지털기업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마련된다.

프롭테크(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 위치 기반 광고 플랫폼 3D 모델링 안전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또 실시간 홀로그램 아바타, 비행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로봇,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K-UAM(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새롭게 개척되는 미래 산업을 조망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된다.

공간정보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정보기술과 정책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도 이어진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주요 진출국의 장·차관 등이 참석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도 펼쳐진다.

국인과 함께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올해 '브릭아트공모전'과 연계해 최고 1000만원이 걸린 33점의 수상작 전시와 시상식도 함께 마련된다.

스마트국토엑스포 김미정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절되었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을 조망해 공간정보산업계의 현주소를 미래로 그려보는 자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전주매일 캠페인